

출판도시가 스물두 해 전에 던졌던 '부탁의 말'

'The earnest message' that Publishing City issuing 22 years ago

이기웅 | Yi, Ki-ung
열화당 대표

약력

- 성균관대학교 졸업
- 현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 함부로 글쓰지 않는다 | 함부로 책내지 않는다 | 함부로 집짓지 않는다

만약에 위의 말처럼 절제심 있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함부로 생각지 않는다'는 전제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구제역 시대'라 할 오늘의 현실에 다시금 화두로 삼을 일입니다. 구제역이라는 짐승병이 끝모를 인간 탐욕의 결과로 나타난 재앙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재앙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샌다이-후쿠시마 등 일본 동북 해안을 온통 흐뜨려 놓은 엄청난 쓰나미 재난의 뉴스를 들으며 이 글을 씁니다. 아름답던 조그마한 도시들, 포근하던 갯마을 취락(聚落)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봅니다.

인간이 빛나는 문명의 성취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옳았습니다. 알베르 카뮈(Albert Camus)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양차(兩次) 세계대전이 막 끝난 1946년에 쓴 글을 다시 기억에 떠올려 봅니다. 17세기는 '수학의 시대'요, 18세기는 '물리학의 시대'요, 19세기는 '생물학의 시대'라 명명했습니다. 수학(數學)과 물리학(物理學)과 생물학(生物學)과, 그리고 그 밖에도 화려한 과학기술 문명을 꽃피운 많은 분야들이 인간의 지혜로운 머리에 의해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듯했습니다. 카뮈의 말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20세기를 가리켜 '공포(恐怖)의 시대'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나 못된 존재인지, 저 비극의 일차대전이 끝난 지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이차대전을 벌이는 파렴치한 존재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知能)이 간교함으로 치닫기 시작하여, 이제는 갈 데까지 간 듯한 풍경을 도처에서 연출합니다. 그들이 힘들여 이룩한 과학기술 문명이 결국에는 탐욕과 시기와 오만과 편견과 손잡으면서,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욕망의 늪으로 빠져들어 몸부림을 치는 형국을 벌이

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공포는 멈추지 않을 기세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일까요?

일본의 재앙은 늘 예견돼 왔습니다. 온 언론은 '일본열도의 침몰'을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앙이 일본으로 국한될 것입니까? 천만에도, 자연재(自然災)든 인재(人災)든 오늘 의 삶, 오늘의 도시문명 속에서는 견잡을 수 없는 재앙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운명일 것입니다.

저는 스물세 해째 파주출판도시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기획하고 추진하고, 그 결과를 어느만큼 바라보고, 그리고 또 이단계 추진을 책임 맡고 있는 처지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삶의 문제와 결부하여 생각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스물두 해 전 출판도시를 발의하면서 던졌던 다음과 같은 '부탁의 말'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에서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도시가 절제하고(節制, moderation) 균형 있고(均衡, balance) 조화롭고(調和, harmony) 그리고 사랑(愛, love)으로 가득찬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만이 갖고 있던 역사를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도시의 지침이 돼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희구합니다. 아름다운 삶은 아름다운 죽음을 전제해야 합니다. 하여, 출판도시의 올해 여름 '영성(靈性)의 공간과 기념비성'이라는 주제로 건축기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수도원, 교회, 성당, 묘지, 추념비, 추모기념관 등을 둘러볼 것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靈長)이라 스스로 일컬음은, 어느 생명에 비해 인지능력이 뛰어난만이 아니라 인지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아울러 가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